

전 현중 교육홍보실장 정영빈씨

지난 88년과 89년에 걸쳤던 현대중공업 1백28일 파업시 파업지도부 교육홍보실장을 역임했던 정영빈(여)씨가 10일 출간했다.

이날 새벽 2시30분 1백여명의 현중노동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공주교도소의 문을 나섰던 정씨는 20개월 동안의 수형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탓인지 헐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외치는 그의 석방인사에서 작고 가녀린 여성의 모습이 아닌

다음은 출감직후 교도소앞에서 행한 전씨와 전씨어머니의 인사말이다.

■ 정영빈씨 석방인사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공주까지 먼거리를 달려와 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개월동안 동지들과 부당하게 격리되었던 삶의 어려움은 미래에서의 승리로써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쟁의 현장에 서야 할 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욱 더 바라는 바라고 생각했기에, 어머니 혼자 쓸쓸히 서울로 돌아

"나는 다시 투쟁현장에 서야 할 몸"

1백28일 파업때 선봉에 섰던 '투사'로서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낼 수 있었다.

정씨는 87년 7·8월투쟁 이후 선장설계부 대의원과 3대 집행부 여성부장을 지냈고, 1백28일 파업 당시에는 파업지도부 교육홍보실장으로서 선전·교육활동 및 총무역할까지 도맡았던 파업지도부 중심인물중의 하나였다.

이어 낮 12시30분 울산의 현중노조 사무실앞에서 열린 '석방환영대회'는 전씨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대회에는 사무실 앞길을 꼭 채울만큼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며, 특히 사무직 여성조합원들도 다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없습니다. 우리노동자에게는 승리와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미래의 승리가기에 현재의 어떠한 고통도 달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서울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께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지들과 함께 울산으로 가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투

아가셔야 될 것이 안타까워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인사말씀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 정씨 모친의 인사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자식이 컴컴한 굴방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다고 온 것이 이지, 서울로 데려가기 위 해 온 게 아닙니다. 원직복직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측에도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먼길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산=김상균기자>